



“눈 빠지게 기다렸지 말입니다” 프로야구 오늘 개막

2016 프로야구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KIA는 지난 30일 조명탑이 켜진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간훈련을 갖고 NC와의 개막전 마지막 리허설을 끝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반기 잘 버티면 KIA 타이거즈 ‘V11’ 가능하다”

KIA 타이거즈의 2016시즌? 전반기에 답이 있다! 해설위원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호랑이 군단’의 두 레전드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과 이종범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으로부터 2016시즌 전망을 들어봤다. 누구보다 속속들이 KIA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

두 사람은 KIA의 가을 전지를 낙관했다. 이순철 위원은 ‘잠정적인 우승후보’라는 표현까지 썼다. 단 전제조건은 있었다. 전반기 잘 버티면 경우이다.

이순철 위원은 “전반기만 잘 버티면 잠정적인 우승후보라고 본다. 야구는 공격보다는 수비로 하는 것이다. 전반기만 잘 버티면 우승까지 도전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가을전지를 이끌 수 있는 힘은 역시 탄탄해진 선발진이다.

그는 “선발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매력 없는 팀인데 선발이 확실하 좋아졌다. 임창용도 왔으니 마운드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종범 위원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종범 위원은 “전반기에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



‘타이거즈 레전드’ 이순철·이종범의 전망

탄탄해진 선발진·임창용 마운드 큰 힘

확실한 주전·센터라인 없는 건 아쉬워

‘키 플레이어’는 나지완·김주형·곽정철

는다면 5강에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 선발은 좋은데 불펜이 약하다. 임창용이 왔는데 마운드에서 놀 줄 아는 투수다. 전반기가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선발진과 함께 공통적으로 꼽는 KIA의 장점은 ‘김기태 감독’이다.

이순철 위원은 “김기태 감독이 여러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인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고, 이종범 위원은 “감독의 리더십이 큰 강점이다. 그런데 선수들이 그것을 잘 못 따르고 있다. 감독이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데 성적

이 나아 그제 빛이 난다. 선수들이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낙관적인 전망은 내어놓은 이들은 KIA의 야킴 레스건을 주전과 센터라인으로 꼽았다.

이순철 위원은 “주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확실한 주전이 없다. 이 선수 저 선수를 기용해서 우승을 한 팀은 없다. 백업 선수들이 만들어졌지만 우승 전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범 위원은 “지난해에도 많이 부각됐는데 센



터라인이 약점이다. 지금도 포수를 빼고는 2루수, 유격수, 중견수 정해준 것이 없다. 2루수, 유격수 등 큰 변동 없이 수비 쪽에서 버티는 팀이 5강을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타선에서는 각각 김주형과 나지완을 마운드에서는 두 해설위원 모두 곽정철을 키플레이어로 꼽았다.

이순철 위원은 “김주형은 전문가를 가장 헛갈리게 하는 선수다.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 봐야 하는 데 평가하기가 매우 힘들다. 유격수 김주형이 성공

을 한다면 정말 대박이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박이다. 유격수가 결코 쉽지 않은 자리다. 성공을 바라지만 쉽지 않은 자리이자 역할이다”며 “곽정철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유지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5~6년의 공백이 있었다. 투구수를 많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종범 위원은 “나지완이 타선의 키플레이어다. 그동안 팀에서 잘해왔는데 지난 시즌 좋지 못했다. 지난해의 상처, 아픔들이 많은 공부가 됐을 것이다. 타선의 마지막 퍼즐인데 득점권 찬스가 나지완한테 많이 몰릴 것이다. 몸쪽 승부에 많이 대비를 해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김기태 감독이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KIA의 4번 타자라는 자신감과 마음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곽정철이 부활투를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마운드 성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예전 모습을 보여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부상이 가장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양현종



NC 허커

‘NC 천적’ 양현종 출격... ‘KIA 천적’ 잡는다

오늘 마산 개막전 선발...상대는 허커

그라운드다 다시 깨어난다. 봄을 기다린 2016시즌 프로야구가 1일 6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V11”을 내건 KIA 타이거즈는 1일 마산구장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016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프로야구 사상 첫 ‘좌완 3년 연속 15승’에 도전하는 양현종이 KIA 선발로 첫 승을 책임진다. NC는 에릭 허커를 내세워 맞붙을 놓는다.

험난한 출발이다. 박석민으로 타선을 업그레이드한 NC는 이견 없는 우승후보다. 여기에 상대전적에서도 KIA가 한참 밀린다. 예상 외의 6연승으로 출발했던 지난 시즌, KIA는 안방에서 치른 NC와의 첫 시리즈에서 싹쓸이 3연패를 기록했다. 연승 가도를 달리며 NC전에 대한 기대도 높였지만 세

경기를 내리 내주며 꼬리를 내렸다. 시작부터 꼬인 승부. 결국 KIA는 NC전에서 5승11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NC타자들 앞에만 서면 좌아지는 투수들은 5.9%의 평균자책점으로 22개의 피홈런을 허용했다. NC전 타율도 0.235에 그치면서 진퇴양난이었다.

부진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승부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시즌 NC에 많이 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다”고 언급하며 NC에 강했던 양현종을 개막전 선발로 나섰다.

시범경기 기싸움에서는 KIA가 완승을 했다. 실전 같았던 시범경기 두 경기에서 KIA는 모두 1점차 승리를 신고하며 NC전 필승 의지를 다졌다.

난적과의 승부, 김주형·김다원·나지완 ‘85 트리오’ 공격의 키를 쥐고 있다.

김주형·김다원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보여준 타격감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특히 성공적으로 시범경기를 끝낸 ‘유격수 김주형’ 카드가 공·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김주형은 시범경기 14경기에서 35타수 16안타, 0.457의 맹타를 휘두르며 시범경기 MVP가 됐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유격수라는 자리가 가진 책임감도 크다. 작은 실수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긴장감 높은 경기, 김주형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나지완은 이제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난 시즌 지독한 부진에 시달렸던 나지완은 여전히 예열 중이다. 그러나 시범경기 막바지 감을 살린 게 위안이다. 기다릴 수 없는 실전 무대인 만큼 시작이 중요한 나지완과 KIA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6 프로야구 대기록 보인다

타이거즈 2200승	-50
이범호 1500안타	-126
최영필 500경기	-7
김주찬 800득점	-59
한기주 100세이브	-30



2016시즌 프로야구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144경기 일정 시작한다. 올 시즌에도 기록을 향한 도전들이 전개된다.

KIA는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2200승 고지를 노리게 된다. 앞으로 50승을 더 수확하며 팀 2200승이 채워진다. 타선진 부문 독주는 계속된다. 앞으로 929개의 타점진을 더하면 역대 최초 2만6000타점진 기록이 쓰인다. 지난해 9월24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홍건희가 2만5000타점진의 주인공이 되는 등 KIA는 지난 시즌 979개의 타점진을 수확했다.

타자들은 삼성에 이은 두 번째 기록들을 준비한다. 3600홈런(-61), 5만5000루타(-263), 1만8000타점(-293), 1만9000득점(-65)이 기다리고 있다. 김일권 이순철 이종범으로 이어진 ‘대도 계보’를 통해 쌓아온 도루 기록 경신도 계속된다. 역대 팀 최초 4200도루 기록에 46개가 남아있다.

프로야구 최고령 최영필도 매경기 기록을 경신한다. 특히 앞으로 7경기에 더 출전하게 되면 500경기 출장이다. 또 16.2이닝을 막아내면 1000이닝 투구도 완성된다.

좌·우에이스 양현종과 윤석민은 타점진에

이름을 남길 준비를 끝냈다. 양현종이 95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1000타점진 투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선발로 돌아온 윤석민은 83개의 타점진을 추가하면 1100 고지를 밟는다. 특히 양현종은 통산 7번째 3년 연속 150타점진에도 도전한다.

가나긴 부상을 털어내고 4년 만에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한기주의 기록 시계도 다시 돌아간다. 올 시즌에는 이루기 어려운 기록이지만 100세이브(-30)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건다. 타석에서는 이범호와 김주찬이 기록을 쌓아간다. 1700경기 출장(-72)을 앞둔 이범호는 1500안타에 126개가 부족하다. 지난해 초반 부진에도 118개의 안타를 때려냈던 만큼 올 시즌 도전해 볼만한 기록이다. 2500루타에는 63개, 800득점에는 38개, 900타점에는 44개가 남았다.

김주찬은 바로 기록을 쓴다. 김주찬이 4차례 2루까지 내달리면 250 2루타가 만들어지고, 50 3루타에는 하나가 남았다. 800득점에는 59개가 부족하다.

부진 탈출을 노리는 나지완에게는 1000경기 출장이 목표가 됐다. 남은 경기수는 122경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